마음 감옥내 독방과 일반감방

(여호수아 10:1~11)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륙하고 벧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 감옥내 독방과 일반 감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감옥내 독방과 일반 감방'
마음에는 감옥이 있는데 독방과 일반 감방이 있습니다. 몸이 줄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데 생각이나 말과 행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기도 늘 무섭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마음의 감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치료나 상담학 같은 것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데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위한 시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감옥을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감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트라우마가 있는데 충격을 받아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의 감옥에 갇힙니다. 저 같은 경우 마음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사춘기 때의 감정을 둘째형과 저에게 쏟아냈던 것입니다. 엄청 맞았습니다. 두 살씩 터울이 나는데 저보다도 둘째 형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중학교를 올라가서 성적도 좋았습니다. 늘 1~2등만 하는데 선생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시더니 '애가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랍니

다. 선생님이 보실 때 환경미화 같은 것을 할 때, 반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 내 의견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이 한 마디만 하면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형이 작은 형을 때리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동 학대 같은 것들이 마음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로 발견되는 것이 수치심입니다. 이것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뚱뚱했습니다. 옛날에는 버스를 탈 때에 둘씩 앉는 의자가 아니라 지하철처럼 벽면을 향해 긴 의자가 나 있어서 마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연희동이고 학교는 서대문인데 버스를 타서 앉으면 제 짧은 다리가 의자에 눌려서 넓적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창피해서 의자가 비어있어도 앉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감옥인 것이죠. 여자 분들도 몸이 뚱뚱하면 비키니를 못 입잖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비키니를 입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손발을 수갑으로 채우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수치심에 갇혀있으니 비싼 돈 주고 산 비키니도 입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은혜로 여러 가지 못나고 부족한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등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트라우마, 수치심, 열등감과 같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용기가 제일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마음의 감옥으로 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감옥에 관해서 종사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분들의 모든 생각이 한계에 갇혀있습니다. 어떤 한계인가 하면 트라우마, 수치심, 열등감으로부터 빠져 나오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아는데 이게 한계이고,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결코 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감옥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트라우마, 수치심, 열등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옥 내의 독방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트라우마나 수치심이나 열등감에서 빠져나와도 내 마음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단지 감옥 내의 독방에서 빠져나와서 일반 감방으로 옮기는 것인데 2인실, 4인실로 옮겨진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두 사람만 모여도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회나 사람들로부터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독방에서 꺼내어 사람들이 같이 머무는 일반 감방으로 옮겨져서 그 사회 안에서 잘 지냅니다. 이것을 마음의 감옥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 감방에서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어도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을 나와야 진짜 감옥을 나오는 것인데 4인실 감방이라는 사회 자체가 감옥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독방과 일반 감방이 아닌 독방과 감방 전체를

포함하는 진짜 마음의 감옥소는 무엇입니까? 이 지구 자체입니다. 지구 자체가 우리 마음의 감옥입니다. 마귀가 이루어놓은 일이 이 지구를 마음의 감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이 지구는 마음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구로 끌어내려서 이 지구에 가두어버렸습니다. 이 지구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면서, 또 반대로 이 지구에 있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묶이게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상담학을 하시거나 심리치료를 하는 분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음의 감옥은 이 지구 자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지구를 떠나야 하는데, 지구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르고 지구를 떠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사창가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데 사춘기가 되도록 그 사창가가 세상인줄로 알고 삽니다. 태어나서 본 것이 그것뿐입니다. 똑같이 이 지구가 감옥이 아닌 세상인줄로만 알고 삽니다. 몸이 지구 안에 있는 것을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지구 안에 있다면 감옥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니다. 기브온 성은 히위 족속인데 기브온을 중심으로 세 성이 더 있어서 총 네 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기브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곳의 예루살렘에 있는 아모리 왕이 듣고서, 주변의 네 곳의 아모리 왕들을 소집해서 동맹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기브온으로서는 이 다섯 왕의 동맹군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의 남쪽에 흩어져있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동맹을 이뤄서 기브온에 쳐들어 온 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왔다고 합니다. 길갈에서 기브온이 24km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밤새도록 와서 기습작전을 펼쳐서 다섯 왕을 무찌릅니다. 이들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이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에게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려서 죽은 숫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주변에 흩어져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동맹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쳐부수려고 전쟁을 일으킨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 전체는 사람들 마음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의 감옥이 된 이 세상에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지구 바깥에 하늘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지구 안의 증거입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지구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이 지구를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이스라엘이라는 증거를 증거로써 붙잡으면, 그 증거와 줄로 연결된 하늘의 하나

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연을 띄울 때에 종이를 찢어서 연줄에 끼웁니다. 그러면 바람을 타고 그 종이가 빙빙 돌면서 하늘에 있는 연까지 닿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에 편지 부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의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이스라엘과 줄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과 줄로 연결된 하늘의 증거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싸움은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증거삼아서 가나안 땅 전체 족속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의 역사를 증거삼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조국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에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 끼워 넣으셔서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저주해서 이스라엘에 종노릇하게 하였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제 고라 자손의 시를 보았습니다. 시84: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신앙고백인데 그 축복을 기브온이 받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과 기브온의 반응을 비교해봅니다. 예루살렘 왕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의 기적,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친 모든 소문들을 가나안 서편에서 퍼뜨리신 이유는, 이것을 증거 삼아서 라합이나 기브온처럼 이스라엘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진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기브온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왕이 아모리 왕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자고 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기브온은 앞장에서 여호수아가 왜 우리에게 속였느냐고 다그칠 때 대답한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 전체를 심판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증거물들을 붙잡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아주 하나님이 뿅-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후에 바다 건너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빙-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오자 요6: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는 표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임금 삼으라는 사건이 아니라, 지구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지구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표적(sign)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배부른 게 좋아서 이 세상에 묶인 마음을 그대로 고수하며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기브온 족속과 라합의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 기브온 족속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멸절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고백하지 않는 학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학자들에게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고 일선에 나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왜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지 이상합니다. 그것이 오늘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동맹군의 침략에 의해서 교회가 먹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마음을 하늘에 둬야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옆 사람 모습을 보느라고 주여 삼창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주여 삼창을 제일 좋아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주여 삼창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이 지구에 가두어놓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세상에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돈을 좋아하는데 이거 참 묘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좋아해서 갖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을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교인들도 갖고 싶은 것들이 다 이 땅에 있어서 마음이 이 땅에 묶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묶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마음이, 이 마음의 감옥인 지구 안에 묶이는 것입니다. 돈이 좋아서, 가족이 좋아서, 자식이 좋아서, 건강이 좋아서, 나라가 좋아서, 사업이 좋고 승진이 좋아서 마음을 쓰면서 이 땅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십자가 얘기하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최고

의 성공인 이유는, 일반 교회 밖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면서, 지구가 감옥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사탄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에 기도하며 찬양을 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이 돌에 맞아도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매 맞고 차꼬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어도 마음은 하늘에 가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돌에 맞아 죽어도 자유가 있고 차꼬에 채워서 감옥에 갇혀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멀쩡하게 사방팔방을 돌아다녀도 마음이 감옥에 있는 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가 마귀와의 전쟁에 져서 십자가 생활화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땅에 예배당 지을 생각에 마음이 묶이니 그 교회는 끝납니다. 교회가 끝난다고 해서 교인이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문이 부서지게 많이 옵니다. 그렇게 와서 마음이 다 땅에 붙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마귀가 축배를 드는 것이지요.
마음의 감옥은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라는 감옥에 나를 묶어두는 것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라를 몇 번이고 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재산들이 감옥이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 지구는 감옥입니다. 우리 마음만 떠나있으면 지구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테이블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갇혀있으면 감옥이고 사탄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탈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로 부터의 탈출을 얘기하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이 지구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모든 계명의 어김은 이 지구를 좋아하는 바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방에서 일반 감방으로 나온 것뿐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게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붙잡고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브온을 멸절시키려는 이 예루살렘과 아모리 왕들이 일으킨 전쟁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허락된 증거를 통해 마음을 하늘에 두는 꼴을 못 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자'는 이야기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시장에서든 어디서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가끔씩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의 조직체이지 진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제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 마음이 독방에서 나와 일반 감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옥소 자체를 탈출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화가 우리 손발에 붙고 마음에 붙고 입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